

소년공이 대통령으로 : 학교밖청소년이 꿈을 이루는 세상 위하여

문화향기

이미경

사)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원장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던 한 소년. 그는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쳤고, 누구도 그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언젠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마음 속에 새겼다. 그렇게 자란 그는 훗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다.

학교밖 청소년.

그들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겪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사회는 그들을 문제로 바라보거나 통계의 숫자로만 취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 속엔 열정이 있고 가슴 속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이 있다. 문제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꿈은 특정한 교실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거리에서, 현장에서. 컴퓨터 앞에서 혹은 혼자만의 사색 속에서 피어난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꺾지 않는 사회의 시선과 시스템이다. 정부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직업훈련, 정신건강 지원, 문화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배움이 멈춘 것이 아니며 동등한 존중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나마 조금은 인식도 변하고 기회도 달라졌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 그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학교밖 청소년이 어떤 꿈을 꾸든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나라, 그 나라가 진정한 교육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

그 가능성의 첫 걸음은 지금 이 순간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어주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대통령은 "검정고시 동문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언제나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을 요구 받았습시다. 많은 이들에게 당연한 것도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했습니다. 책상 하나, 교과서 한 권, 시험 볼 기회 하나까지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시다. 조용히, 묵묵히, 혼자만의 힘으로 도전해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홀로 삼켰던 시절, 우리는 정규 교육이 가르쳐주지 못한 굳센 의지를 배웠습시다. 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실력과 의지만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는 증명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

지. 스스로를 믿는 용기, 끝까지 해내는 끈기. 우리는 진짜 배움을 얻었고 마침내 기득권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올린 글을 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기회를 갖고 꿈을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년체전에 출전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운동선수를 보면서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있는 인재육성장학회의 대상도 학생으로 정해져 있다. 10여년전 구정의 담당자를 만나 설득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음악을 잘 하는데도 학생이 아니어서 콩쿨에 나가지 못한 아이에게 대회입상 경력이 없어서 장학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 한 없이 무너졌던 시간이 생각났다. 벽 앞에서 있는 기분이었다.

기회의 땅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명의 아이를 포기한다는 건 한 시대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우리가 외면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울면서도 자라났고, 혼자서도 배웠으며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갔다.

'넌 왜 이 길을 가니?'가 아니라 우리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까?' 라고 말하는 어른이 되자.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학교밖 청소년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 상상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社說

성공 기대되는 '농·어촌 수도' 선도모델

해남군, 전남대와 17일 업무협약

해남군과 전남대학교가 17일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후 위기 시대, 해남군을 식량안보와 농·어업 혁신을 선도하는 전략적 허브로 만드는 것이 공동 목표다. 전국 최대의 농·어업 생산기지인 해남의 인프라와 전남대의 연구역량이 모여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이 탄생될 기대한다.

농·어촌과 대학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농·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 위기 시대 해남을 농·어업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도 연구와 현장 결합시킴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이다. 식량 위기와 어업 자원 감소 등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대학간 거버넌스 구축은 기후 적응형 스마트 농업부터 친환경 어업, 탄소중립 농촌마을 등 혁신적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

수급 불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내 식량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특히 해남군은 350km²에 이르는 전라남도 최대의 곡창지대로 국가적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다. 회원반도를 중심으로 길게 이어진 리아스식 해안선과 서·남해안의 맑고 청정한 바다도 수산업과 관광발전을 위한 동력이다. 여기에 첨단기술과 창의적 융·복합 연구 등 전남대의 연구·교육·기술력이 결합된다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 유입과 농·어촌 활력 제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은 지방대학 육성과 미래 농·산업 전환 등이 골자다. 전남대와 해남군은 변화하는 첨단산업 환경 속에서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 모델을 만드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추진돼야 한다.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조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의미 있는 도전이다.

강위원, 우려 딛고 '전남발전' 성과내야

17일 전남 경제부지사 공식 취임

강위원 신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가 17일 공식 취임했다. 전남도는 강부지사를 두고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추진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 에너지 고속도로,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전남의 핵심 전략 과제를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새 정부·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책임자라는 기대도 드러났다.

강 부지사는 고향인 영광에서 복지공동체 '여민동락'을 설립해 1톤 트럭으로 생필품을 마을에 공급하며 지역 복지 모델을 만든 인물이다. 광주 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락 협동조합'을 만들어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재임 시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썼다. 특히 광주 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락 협동조합'은 노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수 복지 모델로 꼽혀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랐다. 이 같은 이력은 그가 단순 정치인이 아닌 현장 경험과 사회적 실

험을 중시해온 인물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강 부지사가 보여줬던 농촌과 복지를 융합한 전격적 모델 등은 그만인 할 수 있는 혁신의 성과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그의 임명을 두고 정치적 배경과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친명(親明)' 인사라는 점, 경제부지사가 맡아야 할 전문성과 대외 협력 성격을 고려할 때 정치적 색채가 도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부지사가 전남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고 새 정부, 국회, 정당, 경제계, 도의회와 협력하는 중책인 만큼 정치인 출신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 부지사는 "국민주권 정부의 성과와 전남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의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치밀한 실행계획과 실질적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강 부지사가 전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신뢰를 받는 경제부지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7일(현지시간) 이란 로켓의 새로운 포격 이후 텔아비브 인근 헤르즐리아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석대

우리 삶에는 '적정함'이라는 미덕이 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공자도 이를 경계했다. '논어 선진편에서 제자인 자공이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낫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고 답하며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는 말을 남겼다. 지나침은 부족함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결국 공자는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강조한 셈이다.

현대 사회는 과열된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가 일상화된 시대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택·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번지며 또다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토지 거래허가구역 해제,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 완화가 기폭제가 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는 듯하다.

'영끌'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시대의 자화상이다.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LTV 규제가 강화되자 "지금 아니면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조급증이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빚을 내서라도, 모든 자산을 끌어모아서라도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집착은 곧 영끌 광풍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과열이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 불안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지나친 욕심은 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에 짐이 되었다.

지금의 영끌 열기도 다르지 않다. 기대감에 편승한 과도한 대출은 금리와 경기변동이라는 작은 변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리 상승, 경기 둔화 신호가 감지되면서 영끌의 그늘이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리한 선택은 결국 개인의 삶을 옥죄고 시장 전체의 불안을 키운다는 점에서 과유불급의 교훈을 다시금 일깨운다.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다. 삶과 경제, 사회 전반에서 균형과 절제가 필요한 이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조급증이 아니라 긴 호흡의 안목과 책임 있는 판단이다. 과유불급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길을 걸어갈길 기대한다. 최동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